청사초롱문학회 '詩, 봄꽃 피우다'

군산시 채만식문학관서 '창립 37주년 기념 시화전' 5월 12일까지 개최

군산시 채만식문학관이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군산 최초의 여류문학단체인 '청사초롱문학회'의 창립 제37주년 기념 시화전을 2층 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시화전에서는 '시(詩), 봄꽃 피우다'를 주제로 청사초롱문학회 회원들의 창작시 28편을 생활 소품인 원목 찻상과 트레이(쟁반)에 레이저 기법을 활용해 새긴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 제목인 '시(詩), 봄꽃 피우다'는 봄꽃이 피는 시기와 문학회 회원들의 감성을 담아 선정됐다.

여류 시인들의 밝고 따듯한 감성을 담은 시(詩)가 자연소재인 원목 생활소품과 만나 작품이 되어 봄꽃 만개한 이 시기에 문학관을 찾는 시민과 내방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청사초롱문학회(회장 이경아)는 지난 1986년에 설립해 37년 동안 전통의 맥을 유지하고 있는 군산 최초의 여류문학단체로, 매년 청사초롱문학회 문집 발간,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나눔 행사 등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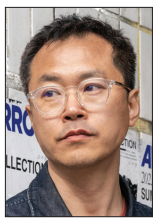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채만식문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시화전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시민들의 봄맞이에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사초롱문학회 창립 제37주년 기념 시화전 리플릿

한편, 채만식문학관은 이번 시화전에 이어 오는 6월에는 '역사로 남은 내 삶의 기록'을 주제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학 장르를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 '배우 백현진'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7일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배우 백현진을 선정, 발표했다.

22회 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인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을 프로그래머로 선정해 자신만의 영화적 시각과 취향에 맞는 영화를 선택, 관객에게 선보이도록 한 섹션이다. 첫 번째 올해의 프로그래머는 배우 류현경, 두 번째는 연출자 연상호 감독이 맡아 영화제의 대표 섹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했다.

올해의 프로그래머 백현진은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드라마 '모범택시' '가우스전자' 등에서 탄탄하고 개성 넘치는 연기력을 선보였다.

음악가 겸 화가이기도 한 백 프로그래머는 1997년 '어어부 프로젝트' 정규앨범 '손익분기점'으로 데뷔한 이래 그룹 '방백'과 '어어부 프로젝트' 멤버로 꾸준히 활약해 왔다. 2017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로 개인전 '말보다는', '백현진: 퍼블릭 은신(隱身)'을 개최하기도 했다.

백 프로그래머가 올해 선정한 작품은 장·단편 7편이다. 자신이 연출한 '디 엔드' '영원한 농담'과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3부작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 '자유의 환영' '욕망의 모호한 대상'을 선정했다. 자신이 출연한 장률 감독의 '경주', 김지현 감독의 '뽀삐'도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찾아가는 시니어 양성평등 교육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지난 7일 부안군 실버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시니어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시·군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해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특강 제공으로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노년기 부부의 황혼 이혼을 증가시키는 핵심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과거에 비해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시니어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필요성 이해하기 △부부 갈등, 세대 갈등 발생 원인 및 해소 방안 △성평등한 손자녀 양육 방법 △사례를 통해 본 성차별 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양성평등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부부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양복심 전북교육청 학교폭력조정지원단 선임위원이 속담, 트로트 가사, 광고나 드라마 등 시니어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예시로 활용한 대상자 맞춤형 눈높이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전정희 센터장은 "시니어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단단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삶의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선배인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센터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닥 심은데 한지난다' 닥나무 묘목 화단에 심어

전주천년한지관, 식목일 맞아 식재

전주천년한지관은 지난 8일 식목일을 맞아 전통한지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고, 한지 원료 수급 및 보급의 염원을 담은 '닥 심은데 한지난다' 닥나무 묘목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을 비롯해 전주시의회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과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전주 시민 10개 가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닥나무 묘목 20여 그루를 전주천년한지관 앞 화단에 심었다.

한편 한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닥나무의 꽃은 봄에 잎과 함께 피고 열매는 6~7월에 익으며, 나무는 11월~12월경 수확된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를 직접 심고 나서 한지 제조 체험까지 하고 나니 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식재 된 닥나무 묘목을 살피러 한지관에 꾸준히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닥나무 묘목 식재 행사는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지 원료의 원활한 수급과 보급 확대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군산시립예술단 합동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

교과서에 있는 아름다운 명곡들이 무대에서 펼쳐진다.

군산시립예술단은 2023 청소년 음악교육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를 오는 13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서 음악회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들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군산시립교향악단 이명근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무대를 마련했다.

교과서 음악회라는 타이틀에 맞게 각 무대를 수업 시간처럼 꾸며 1교시는 음악회 에티켓을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 연주에 맞춰 알려주고 2교시는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과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인 클래식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3교시에는 세계 대중가요를 주제로 하여 도레미송, 이탈리아 칸소네 푸니쿨리 푸니쿨라, K-POP 연주 등 공연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마지막 4교시에는 합창을 주제로 해서 베르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한국 민요모음곡, 개선행진곡을 군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합동으로 연주하여 대미를 장식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어린이공연장서 가족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무료 공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족뮤지컬이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열린다. 군산시는 오는 22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가족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목 짧은 기린 지피'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내용으로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며 다른 모습 그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작품이다.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 통합예약시스템(www.gunsan.go.kr/event)을 통해 1인당 최대 5매까지 예약 가능하며 무료 관람으로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의 원작 동화를 무대로 옮긴 작품으로 2014 서울 어린이연극상 대상, 2018 K-뮤지컬 로드쇼 선정작으로 지정되는 등 완성도가 뛰어난 공연이며, 연극제 심사평에서 스토리가 재미있고 극의 구성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가족 뮤지컬로 준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